Global Goings-on

WHO

WHO, 2010 담배로부터 여성과 아동 보호

• 2010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여 세계보건기구는 담배와 관련된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여성과 여아들을 보호할 전세계적 행동을 촉구함.

• WHO 사무총장 마가렛 찬 여사 – "몇몇 국가들에서의 동향은 심히 걱정됩니다. 흡연은 실제로 스트레스를 감소하지도 않고 멋진 행위도 아닙니다. 흡연은 단지 중독성이 있고 치명적인 습관일 뿐입니다."

• 2010년 금연캠페인의 주제는 여성과 담배로 여성과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담배광고의 유해에 초점을 맞춤.
  – 캠페인은 모든 나라의 정부가 모든 유형의 담배 광고, 선전, 후원 등을 금지할 것과 WHO 담배규제협약에서 명시한 대로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것을 촉구함.

• 아직까지는 남성 흡연자가 여성보다 훨씬 많지만 (여성은 전체 흡연자의 20% 정도) 나라에 따라 여자 아이들의 흡연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.
  – 불가리아, 칠레, 콜롬비아, 쿡 아일랜드, 크로아티아, 체코, 멕시코, 뉴질랜드, 나이지리아와 우루과이에서는 여자 아이들의 흡연율이 남자 아이들보다 높음.

• 갈수록 담배광고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흡연을 미와 자유의 상징으로 미화하고 있음.

• 종종 여성들은 직접적인 흡연보다는 남성의 흡연에 의한 간접흡연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.
  – 연간 43만 명의 성인 사망이 간접흡연의 결과이며 이중 64%가 여성으로 특히 산모와 태아는 간접흡연의 유해에 매우 민감함.

• WHO 금연운동본부의 본부장인 더글라스 베쳐 박사 – "WHO 담배규제협약을 통해 각국 정부는 여성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담배로 인한 심장병, 뇌졸중, 암, 기관지 질환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."

• 2010 세계 금연의 날 행사는 5월 31일 일본 동경에서 일본보건노동후생성의 주최로 개최됨.

2010년 5월 28일 / WHO
〈원문링크:http://www.who.int/mediacentre/news/releases/2010/women_tobacco_20100528/en/index.html〉

미 국

군살과의 싸움 보다 많은 아이들을 보다 건강하게 먹이기 위한 분투

• 학교 급식은 거대한 비즈니스임.
  –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국립학교급식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의 3천만 학생들에게 무상 혹은 할인된 가격의 점심을 제공하고 있음.
  –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점심식사 보조금을 받는 아동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건강에 좋은식사일수록 소금, 지방, 설탕 등이 많이 들어간 음식보다 비용이 더 들게 됨.

• 올해 3월 상원농업위원회는 아동의 영양개선을 위해 45억 달러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10년간 학교급식비를 보조토록 함.
  – 이 법안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급식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식단의 영양가를 높일 전망임.
  – 이 새 법안은 2015년까지 아동이 굶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임.

• 비록 아동영양개선에 대한 투자로서는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법안이지만 향후 10년간 아동 영양 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10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한 오바마의 공약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.
  – 법안에 따르면 한 끼당 6센트 정도 추가적으로 보조될 전망이어서, 적어도 끼니 당 70 센트의 증가와 매년 4십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한 뉴욕상원의원 키어스턴 길리브랜드의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침.
  – 현재 미국 아동 3명 중 1명이 비만이며 비만은 국가 보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.
  – 군 지원자 중 27%가 너무 비만해서 전쟁에 나가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고 있음.

• 새 법안은 미쉘 오바마 여사의 비만 퇴치 프로그램인 "Let's Move"를 진작할 수 있는 법안으로서 아동들의 식단에 보다 많은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.

• 백악관은 한 세대 안에 아동 비만을 없앨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"Let's Move" 캠페인에 상응하는 특별대책본부를 설립함.
  – 특별대책본부는 최근 70가지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는 12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함.
  – 권고사항 중에는 보다 나은 연방정부 영양기준과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 증가 등이 담겨 있으며 임산부의 체중 조절과 모유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.

• 백악관 특별대책본부는 5월 17일 켈로그, 마스, 펩시콜라 등 건강한체중달성재단(Healthy Weight Commitment Foundation)의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2015년 말까지 회사 제품에서 총 1조5천억 칼로리를 줄일 계획을 세움.

2010년 6월 3일 / The Economist
〈원문 링크: http://www.economist.com/world/united-states/displaystory.cfm?story_id=16274517〉

일 본

해외로 뻗어나가는 일본 제약회사
일본의 제약산업이 국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회사들을 사들이고 있음.

• 노화되고 부유한 인구를 가진 일본의 제약시장은 성장해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침체하고 있음.
  – 수 많은 규정과 가격통제로 인해 일본에서는 신약개발이 활발하지 않음.
  – 일본인들의 의료비 지출은 다른 부자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 – GDP의 약 8%.

•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 제약회사들은 외국 회사들을 사들이고 있음.
  – 가장 최근의 인수는 지난 5월 17일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제약회사인 아스텔라스(Astellas)가 수익성이 높은 항암제 타르세바(Tarceva)와 기대되는 몇 가지 당뇨 및 비만약의 제조사인 미국 OSI사를 현금 40억 달러로 인수한 것임.

• 지난 2년 간 일본은 외국회사의 인수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음.
  – 2년 전 일본 제약산업의 리더인 타케다(Takeda)는 미국의 거대 바이오테크 제약회사인 밀레니엄을 90억 달러에 인수.
  – 같은 해, 일본 서열 3위 제약회사인 다이치 산쿄(Daiichi Sankyo)는 인도 복제약품제조회사인 란박시(Ranbaxy)를 46억 달러에 사들임.

• 이렇게 일본 제약회사들의 해외인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이유는 일본회사들의 현금흐름이 좋고 엔화가 강세여서 해외자산의 구입이 비교적 쉬워졌기 때문임.
  – 또한 인수를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

확장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음 – 특히 세계 약품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.

– 일본 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다수의 약품들이 곧 특허권을 상실할 것이며 따라서 타케다, 아스텔라스, 다이치 산쿄 등의 회사들은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• 제약회사들의 최근 인수합병의 증가는 지난 4월 1일 발표된 새로운 가격정책과 맞물려 있음.

– 새로운 가격정책: 약품이 "혁신적"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2년에 한 번씩 단행되는 정부의 가격 삭감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– 새로운 가격정책은 소위 "drug lag"으로 불리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; 외국 회사들은 신약을 일본에 잘 들여오질 않는데, 그 이유는 신약의 임상실험이 다른 나라에서보다 쉽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며 강제가격삭감정책으로 인해 이윤이 적기 때문임.

– 지난 달 일본 제약시장에서 대부분의 약품 가격은 평균 6.5% 삭감됨.

• 인수합병 후 일본 제약회사들은 외국회사들을 닮기 시작함.

– 타케다와 아스텔라스는 연구개발본부를 미국으로 옮겼음.

– 다이치 산쿄는 외국 복제약품제조사들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• 그러나 이들 일본회사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수입을 일본시장에서 얻고 있음.

– 과연 이 회사들이 새로 영합된 외국회사들과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업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의문임.

2010년 5월 20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링크: http://www.economist.com/research/articlesBySubject/displaystory.cfm?subjectid=531766&story_id=16168270〉